

2017년 12월

포장재, 식품비중 낮추고 기능성포장으로 고부가가

화학경제연구원
컨설팅팀

발간일: 2017년12월
분량: 119 페이지
가격: 99만원

연구원
(02)6124-6660
consulting@chemlocus.com

플라스틱 포장 시장은 식품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내수 위주의 산업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4개 종류의 플라스틱 필름 시장 및 PO 수축필름, 라벨용 수축필름, PET음료용기, PTP 의료포장의 수요 현황을 조사했다.

OPP Film, 공급과잉으로 구조재편 “조짐”

OPP Film(Oriented Polypropylene Film)의 국내 수요는 2016년 약 11만7000톤 수준으로 파악됐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날개 포장에 적용되는 OPP Film의 수요가 5년간 연평균 4.2% 성장했으나, 향후 5년간 시장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OPP Film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대림산업, 율촌화학의 무리한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가의 수입물량 증가 역시 국내 기업들의 무리한 가격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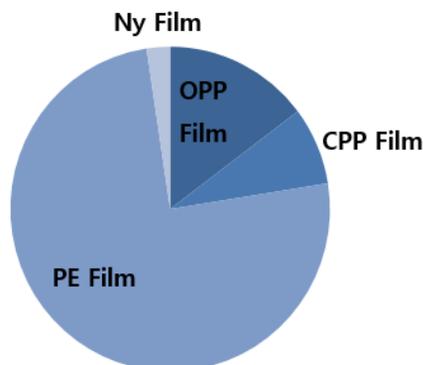
OPP Film 메이커들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용 신규 Grade 개발, 해외 판로 개척, 시장세분화 등 새로운 시장 전략을 구체화 시키지 못한 기업들의 구조재편이 예측된다.

CPP Film, 식품 시장의 의존도를 낮춰야 할 때!

PP를 무연신하여 Casting까지 가공한 Film을 의미하는 CPP Film(Casting Polypropylene Film)은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90% 이상 OPP Film, PET Film 등과 합지해서 채용된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CPP Film의 용도로는 스낵, 제빵 등의 식품 포장용이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플라스틱 필름 시장 수요(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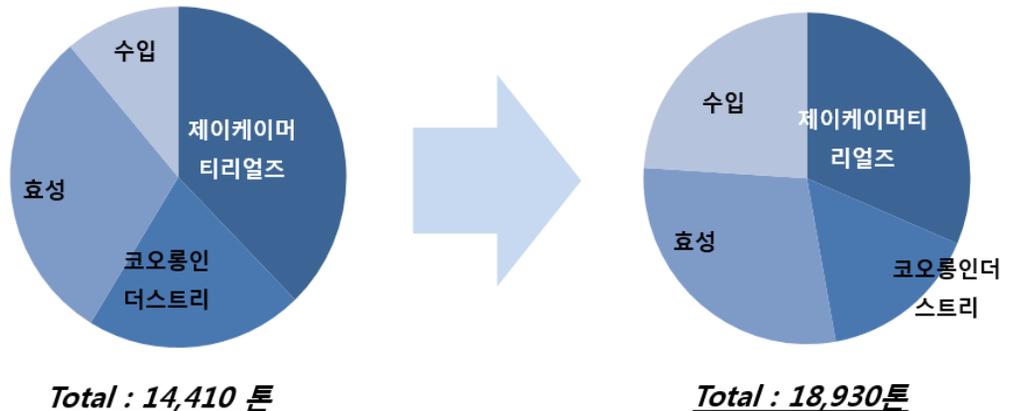
Total : 약 800,000톤

Source) CMRI

그러나 내수시장 포화와 가격 하락 등으로 점차 수익성을 잃어가는 식품 포장 용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보호용, 생활용품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시장을 세분화(Target Market Segmentation)하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OPP Film과 달리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게 드는 포장기계의 특성상 2016년 기준 국내 CPP Film 시장은 군소의 다수 기업들이 경쟁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삼민화학은 전체시장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Nylon Film시장 수요(2012→2016)



Nylon Film 메이저 3사, 중국 공세 주의보

국내 Ny Film시장은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코오롱인더스트리, 효성 3개 메이저 기업이 과점하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다. Ny Film의 원재료인 CPLM(카프로락탐)은 국내에선 카프로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겨울철 섬유 성수기에 주로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는 원료가 폭등으로 Ny Film 가격 역시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에서 Ny Film 공장을 대규모로 증설할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5년 이내에 전세계적인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할 경우 Film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중국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기능성, 고품질 제품으로 향후 다가올 시장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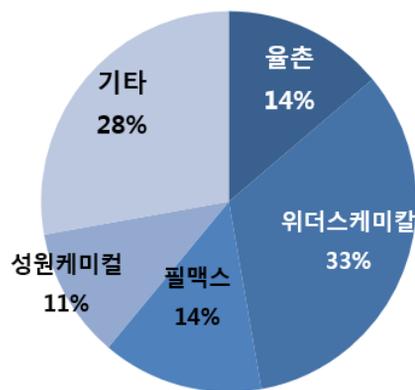
PO수축필름(POF), 수입품 증가 추세

PO(Polyolefine) 수축 필름은 시장에서 POF(Polyolefine Film)이라고도 불리며, 연신공정한 열가소성 필름에 가열을 통해 재연신, 냉각시켜 수축성질을 부여한 필름이다. 제조방식에 따라 싱글레이어, 멀티레이어, 크로스링크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PP와 LLDPE를 혼연하거나 합지하여 생산한다.

주로 컵라면, 냉동식품, 유제품 등의 식품포장과 문구류나 일반 생활제품 포장용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 PO수축필름은 위더스케미칼이 국내 전체 생산능력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즉석식품 시장 성장의 영향을 받아 국내수요가 신장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추세로 수입물량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PO수축필름 생산능력(2016)



라벨용 수축필름, PET가 70% 이상 차지

라벨용으로 사용되는 수축필름은 주로 식품용 제품 라벨에 채용되고 있다. 종이를 이용한 스티커 라벨은 분리배출 시 접착제가 병에 잔류하게 되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플라스틱 수축라벨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재질에 따라 PVC(Polyvinyl Chloride),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OPS(Oriented Polystyrene)라벨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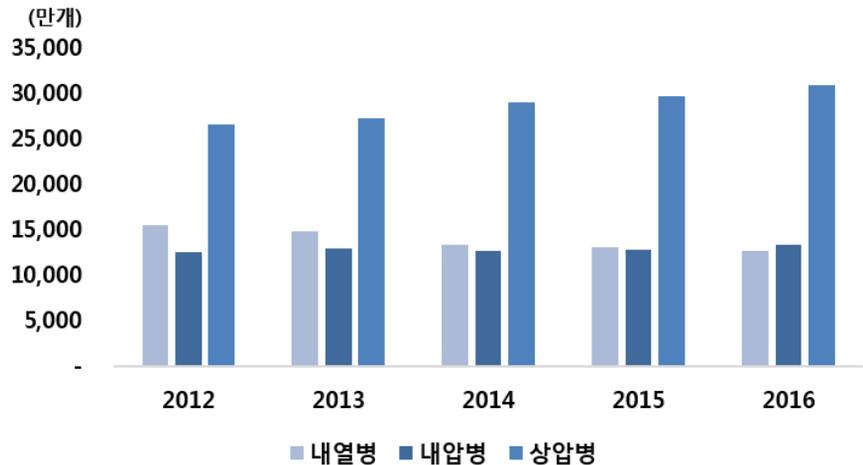
종류별 국내수요로는 PET수축필름이 시장의 75%로 대부분의 라벨에 적용되고 있으며, PET수축필름 주요 기업으로는 SKC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있다. 반면, PVC수축필름은 일부 냉동식품에만 적용되며 국내 생산물량의 90%이상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PET 음료용기, 향후 3.4% 양호한 성장 기대

'페트병'으로 불리는 PET 음료용기는 내용물에 따라 내열병, 내압병, 상압병, 내열압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 수요는 약 57억개이며, 상압병이 시장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내열병은 고온 살균이 필요한 음료, 내열압병은 주로 탄산가스가 주입된 음료, 상압병은 생수를 포함한 상온 및 상압의 음료를 담는 용기이다.

최근에는 무균 충전 시스템인 아셉틱(Aseptic)충진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고온 살균이 필요한 차, 주스, 커피 등 음료포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유통과정에서의 비용절감, 위생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향후 아셉틱 시스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PET 음료 용기 종류별 수요 현황 (2012-2016)



PVC PTP, 의약품 포장으로 각광

PTP(Press Through Package)포장은 블리스터(Blister)포장 이라고도 불리며 약품의 보관이 편리하고 외부오염 차단성이 우수하다. PTP포장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PVC, PVDC, Alu-Alu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에서 PVC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는 한화L&C와 케이피텍이 있으며, PVDC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Alu-Alu는 PVC와 알루미늄, 나일론 합지 제품이며 가격이 비싼편이므로 배리어성이 꼭 필요한 의약품에 사용되고 있다. 최근 건강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케팅용으로 Alu-Alu포장 수요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 상세내용은 CMRI 시장분석 보고서- 패키징 시장분석 및 전망(2017)보고서 참조

패키징 시장분석 및 전망(2017) 보고서에서는 용도/ 기능별 플라스틱 패키징의 시장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5년간 국내 수요 및 성장성을 전망하고 있다. OPP Film, CPP Film, Ny Film, PET 음료용기 등의 시장분석 및 전망 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